천년의 빛 영광 HOTEL THE STAR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TEL. 061) 350-7900

전남매일

www.jndn.com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제8912호 (음력 6월 13일)
창간일 1989년 6월 29일 대표전화 (062)720-1000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기업
현대아미스(주)
공동주택관리 경비·청소 용역 소방시설관리 소독·저수조청소 전기안전관리 대행

월급만 빼고 다 올라 민생경제 '3고 공포'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외식·생활물가 등 물가상승률
IMF 이후 24년 만에 6% 최고
BSI 전망치 최저 기업들 '한숨'
금융 부채 질 악화 양극화 우려
금리인상 부작용 최소 대책 필요

2년 전 내 집 마련을 위해 제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2억 5,000만 원을 2.88%p에 받은 이모씨(34). 그는 변동금리로 주담대에 가입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도 그렇고, 금리가 낮아진 덕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작년에 비해 거의 0.42%p 오른 것 같아요. 월급 오르는 건 많아봐야 10만 원인데, 빚 늘어나는 건 금방이네요."

이씨는 금리 인상으로 매달 갚는 이자만 14만 원가량 더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기초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낸 은행 대출 이자에 등골이 휠 지경이 된 것이다.

금리뿐만이 아니다. 외식 물가와 서비스 물가, 농축산물 가격 등 생활물가 또한 최고로 치솟아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가계 살림살이가 더욱 빠듯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로 국민의 경제적 고통 정도를 측정하는 '국민고통지수'는 2015년 지수 산출 이래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에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로 서민들의 삶이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직장인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며 좀 더 싼 주유소, 저렴한 식당을 찾고 주말 외식과 장보기는 포기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와 고금리에 근심만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 러-우 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4개월 연속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하는 등 하반기 경기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 하반기 가계전망 또한 암울하기 그지 없다.

기업도 어려움을 호소하긴 마찬가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 결과 BSI 전망치는 92.6으로 지난해 1월 91.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러한 수치는 주요 기관의 세계성장률 하향 전망 조정 및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구매력이 위축된 데 따른 것"이라며 "기업들 또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회사채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 상승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제품 판매 부진에 이른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 부문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부채 보유가구를 가구주 특성별로 나눴을 때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이자비용이 적은 수준임에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2%p 상승할 경우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DSR)은 3.8%p 상승하며 타 소득계층 대비 가장 큰 증가폭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질 악화도 가계 양극화를 부추기는 주요 문제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대출에 비해 대출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비은행 가계대출은 전년대비 8.1% 상승, 2021년 4분기 기준 전체 가계대출의 48.2%는 비은행 가계대출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적정 수준의 양적 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및 부실화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가구 등에 대해 맞춤형, 장기적 지원방안 설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지현 기자

iNSIDE NEWS

시교육청 '방학중 무상급식' 추진 ▶6면
전매초대석/양향자 국회의원 ▶8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16개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강기정·김영록 "반도체 특화단지 조기 선정해달라"

간담회서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
정부 기회발전특구 첫 모델 요청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다.

▶관련 기사 2·8면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지난 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 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 기회발전특구의 첫 번째 모델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강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이 커져야 하고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정책이 요구된다"며 "새 정부에서는 산업정책과 교육정책이 같이 가는 균형발전 3.0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광주와 전남은 공동으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광주·전남 인접지역에 300만평 규모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한 뒤 "기회발전특구의 첫 번째 모델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해 주시면 광주·전남이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고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 역시 지방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기 선정과 함께 중앙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이전을 강력 건의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반도체 특화단지는 지방으로 반드시 와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와도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는데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미래시스템 반도체산업의 최적지인 전남·광주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기 선정해달라"며 "반도체 특화단지를 성공시킬 핵심기업과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제학교 설립, 농어촌특별전형에 준한 대학 입학 특례 제공 등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실상 지방행정 업무를 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 이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용현·오선우 기자

아베 전 일본 총리, 유세중 총격 사망

보수·우익 구심, 열도는 충격

아베 신조(67)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받고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했다.

▶관련 기사 5면

일본 최장기 총리를 지냈고 보수·우익 세력의 구심점이던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소식에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8일 오전 11시 30분께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두 유세를 하던 도중 용의자가 수 m 떨어진 거리에서 쏜 총에 맞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후송됐다.

나라현립의대병원 의료진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전 총리가 오후 5시 3분에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41)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8일 선거운동을 하던 중 총격을 받은 뒤 땅에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